

2023년 4월 1-2일 주말예배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 4. 다시, 매력적인 교회로

다시, 매력적인 교회로

사도행전 2장 42-47절

-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언제부터인가 온 나라 안에 웰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남양 유업의 후원으로 열리던 우량아 선발대회 말입니다.

먹고사는 것이 문제이던 시절에는 잘 먹어서 살이 찌고 커지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성장에 최우선의 관심을 가졌던 때는 교인들 숫자만 늘어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장한 한국 교회에서는 보기도 좋고 모양도 제대로 갖춘 웰빙 교회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크기(size)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양(shape)에 대한 것에 더욱 관심을 모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인의 숫자나 교회의 크기를 보면서 칭찬하거나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 교인들은 교회의 크기가 아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본질에 충실한지를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위클리 서울’에 나오는 ‘과대포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2012년 3월 기사)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파손 방지를 위해서 라곤 하지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완충재를 넣거나, 혹은 질소 충전을 해놓아서, 과자를 사면 실제로 기대한 부피의 절반도 안 되는 과자만이 들어 있곤 한다.

감자칩을 사면, 봉지 안의 60% 이상이 텅 비어있다. 겉보기엔 빵빵해도 바늘로 구멍만 하나 뚫으면 금세 반도 안 되는 부피로 줄어들어 버린다. 두 봉지를 먹어도 한 봉지도 채 안 먹은 것만 같은 기분이 된다.

그리고 어떤 쿠키 제품은 커다란 종이상자 안에 개별포장이 되어있는데, 종이상자의 절반이 ‘완충재’로 이루어져 있다. 개별 포장된 비닐 안에도 파손 방지를 위한 질소포장이 되어있음을 감안하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다. 만약 종이상자에 맞게 내용물을 넣었다면, 사실 그

과자의 포장은 절반 크기가 되는 것이 맞다. 고객이 그 종이상자 가득 내용물이 들어있으리라 기대하여 합리적으로 가격 등을 판단, 소비한 것이라면 절반을 채우고 있는 완충재에 그만 속은 기분이 되었을 것이다.

...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잘 팔리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좋은 소비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포장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포장 역시 좋아야만 한다.

하지만, 거짓된 포장은, 사기에 불과하다. 한번 속은 사람은 다시 속지 않는다. 완충재에 속았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 과자를 사지 않는다.

길게 본다면, 포장은 '정보가 없을 때'에나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에 속은 사람들은, 같은 판단 미스를 반복하지 않는다. 물론 포장은 좋을수록 좋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걸 맞는 내용물이 되어야한다. 좋은 내용물과, 그를 빛내는 포장. 이것이 옳은 길이다.

출처 : 위클리서울(<http://www.weeklyseoul.net>)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를 비유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겉모양은 풍성하고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내면을 보며 실망하게 만드는 모습 말입니다.

매력적인 교회 되기

저는 이러한 허세가 아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력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속국으로 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처지에 중간 지도자들이 세금을 걷으면서 자기 민족의 돈을 가로채는 상황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신정(神政)국가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관습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종교적 장사꾼들로 인해 백성들의 삶에 고통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질책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에서 돈 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갈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남의 돈을 갈취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 새로운 종교 운동에 스스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일을 흉내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베드로에게 가져간 일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단지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그들의 삶을 모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흉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밭을 판 돈을 다 가져다 주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얼마를 숨겨두고 베드로 앞에 가져갑니다. 그 당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속인 결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주 무섭고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사도들을 흉내 내고 싶은 마음에 사도들의 ‘안수’를 돈을 지불하고 배우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사도들의 사역이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제자들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유사종교라 불리는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며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던 때, 셀 수 없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기독교를 모방하며 등장합니다.

하지만 매력을 상실하면 누구도 배우려고 하거나 흉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단이 더 이상 성행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기 보다는 더 이상 교회를 매력 있게 바라보거나 흉내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23년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가 제안 했던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내부인들 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한국교회의 성장의 열쇠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신문에 나온 기사를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말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1년 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조사 결과’ 지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천주교(50.7%) > 불교(50.4%) > 개신교 (31.6%)> 원불교(28.8%) 순으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20년 10월 같은 조사에서는 개신교(28.0%) 가 원불교(30.8)보다 낮은 호감도를 보인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믿는 종교가 없는 응답자에게 불교(49.7점), 천주교(48.2점)에는 보통 정도 호감도를 보인 반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21.9점으로 원불교(29.8점)보다 낮았다는 부분이다. 또한 연령대별 개신교 호감도에서 50대 이상보다 40대 이하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30~40대가 자녀를 기르는 주요 계층임을 감안하면 교회에 대한 비호감이 대물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표1 참조)

이와 관련해 한국리서치는 “개신교는 개신교 신자들만 높은 호감도를 가질 뿐 타 종교인과 무종교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하다”(표2 참조)고 분석했다. 교회에 대한 비호감은 이번 조사만이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6월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 결과는 한국교회에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각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인에 대해 “거리를 두고 싶은(32.2%) 이중적인(30.3%) 사기꾼 같은 (29.1%)”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불교와 천주교의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미지를 떠올린 것과 상반된 응답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드림포틴즈 대표로서 다음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라영환 교수(총신대)는 세상과 다음세대에 매력과 멋짐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라영환 대표는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곳임에도 한국교회는 이원론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공적 영역에서 신앙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상 속에서 신자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세대에게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연령대별 개신교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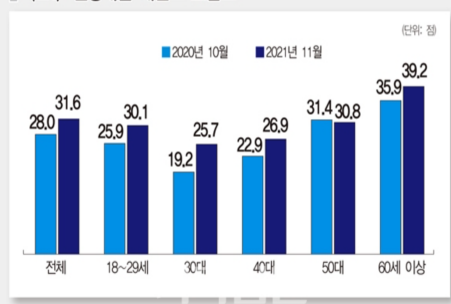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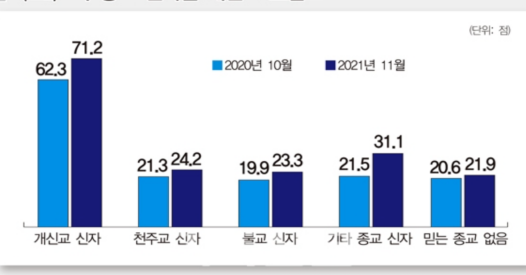


표2) 각 종교 신자별 개신교 호감도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외부인들이 평가하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외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진정한 매력은 누군가의 눈길을 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걷던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매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해 방송국 PD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제작해야 할 콘텐츠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문제는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었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상한 기독교에 영적 능력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하는 핵심은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24년 전에 만나교회 청년들과 제가 가르치는 신학 대학원생들이 함께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형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탄 학생들과 함께 연변을 비롯한 중국 도시에 들어가면 차 안에 있던 학생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당시 중국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는데, 그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려고 남자들이 말이 없었지요. 단순한 성적인 것이라는 면에서가 아니라, 건강한 남자들의 본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력적인 것에 눈길을 주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력적’이라는 말은 사실 본능적인 ‘이끌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본능적 이끌림에 의해 시선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언젠가부터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매력을 잃은 교회에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를 보면서 ‘본능적 이끌림’이 있었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것이, A. D. 300년과 400년 사이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하나의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을 내렸을 당시에 크리스천은 인구의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흉년이 들거나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 어려움을 당할 때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통해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크리스천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크리스천을 이르는 말에는 ‘hospitality’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로마 황제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를 배신했던 ‘Julian the Apostate(배교자 율리아누스)’는 이교를 부활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있는 이방 종교의 사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본받으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이런 영향력 때문에 기독교는 100년 만에 전 유럽에 퍼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박해로 인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AD 200년 경 지독한 박해의 시기를 지날 때입니다. 당시 귀족이었던 페르페투아가 원형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경기장을 채운 모든 이교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된 것이죠. 어떻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제가 요즘 늘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에 감동하기 보다는,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한 모습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불의하게 돈을 버는 그리스도인보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함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매력적인 삶은 ‘거주민이지만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매력적인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거주민이지만 나그네와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문서에 보면 한 이교도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비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고, 구석진 곳에서는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알랜 크라이더(Alan Kreider)의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게네스가 이교도 켈수스에 대한 논박으로 썼던 글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는 옷감을 짜는 직조공, 구두를 고치는 수선공, 빨래하는 일꾼들이나, 가장 무식하고 촌스러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아는 게 많은 주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이나 무식한 여인네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들의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들을 따르라는 놀라운 말을 하곤 한다. . .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이 삶의 바른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Origen, Contra Celsum, 3. 55, quoting Celsus, who wrote ca 180

위의 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 * 사람들은 보통 가정집이나 작은 공방에서 일했습니다.
- * 그들은 무식하고 촌스러웠습니다.
- * 그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 밑에서 일했습니다.
- * 주인은 그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 * 그들은 자신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 * 어린아이들과 무식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 * 사회적 위계질서를 무시하며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 같이 사회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 * 자신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새로운 권위를 가졌음을 드러냈습니다.
- *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들만이 바르게 사는 길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세상 한 가운데서, 이들은 사람들을 자유로 인도하여 자신들이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서로 교회를 자기가 사는 곳에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매력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웃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만나교회 때문에 주변의 집값도, 땅값도 오르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서로 교회 가까운데 집을 구하려 드니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혐오시설이 아닌, 호감 시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더하시게 될 것입니다.

알랜 크라이더의 [초대교회에 길을 묻다]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글이 나옵니다.

AD 200년경 북부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낮은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 .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Minucius Felix, Octavius 31. 6-8: 38. 6 (North Africa ca. 200)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나 말, 또는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성장했나요?

그것은 그들이 질병과 운명, 그리고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주는 일탈’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낮은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집 저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 자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슨 쇠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놔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은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떤 형제가 여행 중에 그리스도인의 집에 신세를 질 때 집주인이 제공하는 환대는 또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인해 아직 신앙심도 없는 여인이 이런 천상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 남편의 마음속에서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결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Tertullian, To His Wife 4, 7)

여기에 너무나 멋진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일탈’이라는 말이죠.

일탈이라는 말이 대개는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탈이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일탈이 맞습니다.

일탈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탈입니다.

자신들이 감히 흉내지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탈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그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교회를 바라보며 이러한 일탈을 꿈꾸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매우 매력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 유머 감각(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타고나야 하는 것일 수 있죠. 사람을 웃겨주는 능력은 당신의 친구이든, 잠재적인 지인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2. 삶에 대한 열정(passion for life)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열정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과장은 아닙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사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입니다.

3. 결단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decision-making ability)

결단력은 방향 설정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단호함은 타인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4. 친절함(kindness towards others and self)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에게 우호적입니다. 친절함은 매력적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감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것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줍니다.

5. 열린 마음(an open mind)

폐쇄적인 마음은 타인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타인에게 매력적일 것입니다.

6. 자신감(displaying confidence)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에 찬 사람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신감은 매력적일뿐 아니라 전염성이 강해,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7.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accepting of others)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그룹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타인을 인정할수록 타인에 대한 사랑도 커질 것입니다.

※ 해외 정보사이트 'Power of Positivity'에서 발췌했습니다.

기사 자세히보기: <https://goo.gl/VsA1B9>

※ 사진 출처 : 중앙포토, 유토이미지